

##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식 개최

-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생 509명 중 177명만 취업
- 10명 가운데 6명만 직장 찾아... 취업률 43.38%
- 대법원장상은 김동호 · 법무부장관상은 구하경 ·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이유섭이 차지
- 이인복 대법관 아들 한원씨 수료 등 법조가족도

지난 2015년 1월 19일(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법조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 한파'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원장 박삼봉)은 지난 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생 509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한 연수생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77명 뿐이다. 전체 수료생 가운데 군입대한 101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408명 중 43.38%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66명에 불과했고,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신규 검사 임용에 지원해 합격한 연수생은 각각 33명씩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사내변호사 등 일반기관에 취업한 연수생은 각각 20명과 7명이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현재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연수생들도 많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나머지 학생들의 진로도 상당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6.8%의 취업률을 기록한 43기들도 사법연수원 문을 나선 뒤 일곱달이 흐른 지난해 8월 95.4%가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 시점의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수료생 중 여성은 209명으로 41.1%를 차지해 지난해 36.4%보다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국민수 서울고검장, 나승철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직원, 수료생 가족 등이 참석해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지는 대법원장상은 김동호(25·남)씨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장관상은 구하경(26·여)씨,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이유섭(27)씨가 각각 차지했다.

수료생 중에는 이인복 대법관의 아들 한원씨와 안철상 법원도서관장의 딸 해연씨, 박성재 대구고검장의 딸 지원씨, 송진현 전 서울행정법원장의 아들 인원씨, 강재철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딸 연수씨, 김용채 변호사의 아들 성범씨, 박중환 변호사의 딸 진희씨, 신성기 변호사의 아들 종원씨, 유선호 변호사의 아들 현욱씨,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의 딸 효빈씨도 포함돼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